

## 고려시기 농업발전의 중요한 요인

김 옥

고려시기 농업발전에 대하여 연구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잘 알고 조선민족 제일주의정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은 10세기초에 창건된 고려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고려는 신라가 차지하고있던 대동강이남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멀리 북쪽에서 이주하여온 발해의 유민들까지도 하나의 주권밑에 통합하였으며 광활한 고구려의 옛땅을 되찾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렸다. 고려라는 이름도 고구려에서 유래한것이다.》(《김정일전집》 제2권 161페이지)

고려는 근 20년간에 걸친 통합전쟁을 통하여 백제, 신라의 전지역과 주민, 옛 고구려, 발해의 적지 않은 령토와 주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리하여 고려는 국토의 통일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통일국가로 되였다.

고려는 후삼국통합후에도 계속 령토를 확장하면서 동시에 경지면적을 확대시켜나갔다. 그리하여 농업생산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고려가 농업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첫째로, 인민들의 창조적투쟁으로 농경지들을 복구하고 부단히 확대한데 있다.

농경지들을 늘이는것은 농업생산량을 증대시킬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고려인민들은 무엇보다먼저 반침략전쟁후 황폐화된 농경지들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당시 30여년간에 걸친 거란침략자들의 침입으로 하여 많은 농경지들이 황폐화되었으며 농업생산은 심히 약화되였다. 그러나 용감하고 근면한 고려인민들은 전쟁의 상처를 빨리 가시기 위한 농경지복구사업에 힘있게 떨쳐나섰다.

농경지복구에서 앞장선것은 전쟁피해가 가장 심하였던 나라의 서부지역과 중부지역의 인민들이였으며 전쟁피해가 비교적 덜하였던 남쪽지방인민들도 농경지를 복구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1019년 11월 봉건정부는 강(한강)남쪽지역 인민들을 상산, 이천, 수안, 신은, 협계, 우봉 등지에 이주시켜 농경지를 복구하고 농사를 짓게 하였는데 여기에는 정부에서 징발한 인원수보다 더 많은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원된것 같다.

《고려사》지리지에 의하면 상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계속 속현 즉 상당한 수의 주민과 경작지를 가진 행정단위로 남아있었던것을 보면 정부에서 진행한 그 이상으로 남쪽지방인민들이 이 지역에 많이 모여들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려인민들은 녀진침략자들에 의하여 황폐화된 농경지도 제때에 복구하였다.

반거란, 반녀진전쟁후 고려인민들은 황폐화된 농경지를 복구한데 머무른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하였다. 고려인민들은 경내에서뿐아니라 천리장성밖에까지 진출하여 황무지를 개간하여 경작지를 확장하였다.

《고려사절요》 권5 문종 27년 여름 4월조에는 《장성밖 개간전 1만 1 494경을 가을을

기다려 추수하여 군사에 충당할것을 청한 서북로병마사의 제기를 국왕이 승인한데 대한 글이 씌여있다. 이것은 고려에서 천리장성밖에서도 개간사업을 적극 벌렸던 사실을 반영하고있다.

고려인민들은 다음으로 자연정복에 의한 농경지도 부단히 확대시켜나갔다.

우선 다락밭조성사업을 부침땅면적을 늘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힘찬 투쟁을 벌렸다.

고려인민들은 개간하기 쉬운 평지대의 묵은 밭은 물론 산비탈지대까지 돌을 쌓고 충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경작지를 조성하였다.

1123년에 송나라 사신 로운적을 따라 고려에 왔던 송나라 관리 서공의 견문기인 《산화봉사고려도경》에는 《국토가 동해에 면하여있으며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산이 높고 가파로우며 평지가 적으므로 밭을 산간지대에 많이 만든다. 높고낮은 밭이랑을 힘써 만들어 경작하고있는데 먼곳에서 바라보면 계단식돌다리(제교)같다.》라고 씌여있다. 이것은 고려사람들이 산비탈지대에 다락밭을 만들어 경작지를 얻어냈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흙갈이에 의한 새땅조성사업도 힘있게 벌렸다.

《고려사절요》 권4 문종 3년 12월조에 의하면 오늘의 금야에서 《모래와 돌이 있는 경작할수 없는 땅에 곡식을 심게 하여 해마다 잡곡 200여곡(섬)을 수확하였다.》라고 하였다.

당시의 력사를 전하는 책들에는 금야에서의 개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것을 전하는 글이 없다. 그러나 《모래와 돌이 있는 경작할수 없는 땅》에서 수백섬의 난알을 거두어들이자면 반드시 흙갈이에 의한 토양개량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고려때 2 000~3 000말의 잡곡을 수확할수 있는 결수는 7~10결, 면적은 7~20여정보에 달한다.

7~20여정보의 경작지가운데서 자갈밭이 가령 3분의 1에 해당한다 하여도 흙갈이작업량이 상당하였다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또한 간석지를 논으로 풀기 위한 사업도 적극 벌렸다.

뚝을 쌓고 간석지에 논을 푸는 일은 삼국이래로 진행되어온 일이지만 고려시기에 들어와서 전보다 크게 벌어졌다.

고려인민들은 뚝을 쌓는 사업이 밀물이 흘러드는것을 막아 썰물때 드러나는 개바닥을 논으로 풀뿐아니라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간주하고 이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농업생산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1256년(고종 43년) 2월 국왕의 명령에 《...또한 문무관3품이하 권무이상관리들이 차등있게 부역군을 내어 체포와 와포에 제방을 쌓고 좌둔전을 만들며 리포와 초포에 제방을 쌓고 우둔전을 만들것이다.》라고 한 대목이 있다.

좌우둔전은 모두 금강지류의 언저리에 물막이뚝을 쌓고 개간한것들인데 이것들은 밀물때에 강하천물이 넘어나 전에는 경지로 리용할수 없었던 개바닥을 개간하여 농경지로 전환시킨것들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경작지조성은 고려의 농업생산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고려시기 농업을 발전시킬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둘째로, 영농기술을 훨씬 개선한데 있다.

고려의 영농기술발전에서 주목할만 한것은 논밭을 갈구는 시비법이 개선되고 논농사에서 모내기가 보급되었으며 파수업에서 새로운 접목법 등이 적용되고 독특한 과일보관법이 창안된것이다. 새로운 농기구들도 많이 만들어져 농업생산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고려시기에 들어와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서 자급비료의 섞어쓰기와 시비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다.

고려사람들은 풀거름만 만들어낸것이 아니라 짐승의 배설물 같은것을 섞어서 만든 두엄을 내서 땅을 갈구었다. 《동국리상국후집》 권7에 실린 시 《땅이 기름진데 비가 오고 거름을 주니 토란줄기는 중천에 뜬 북두칠성처럼 크게 자랐다.》를 보고서도 당시 고려에서 농작물에 비료를 주고 가꾼 정형을 짐작할수 있다.

고려에서 해마다 불역전이 많이 도입되었다는것은 논밭에 비료를 많이 주어 땅을 갈구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고려에서 2모작이 널리 보급된것도 자급비료를 많이 주어 땅이 걸어진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다.

고려시기 농사법에서 이룩된 성과의 하나는 모내기법이 보급된것이다.

우리 나라 봉건시대초기부터 실시되어온 모내기법은 고려에 들어와서 더 한층 보급되었다.

14세기 시인 박효수의 모내기에 대한 시에서는 고려에서 모내기가 널리 실시된 정형을 잘 보여준다. 그가 읊은 시 《모내기노래 바람에 실려온다》는 당시 모내기로 흥성거리는 모습을 잘 형상하고있다.

고려시기 과일나무접목도 능숙하게 하여 과일재배기술을 발전시켰다. 《리규보작품선집》(2) 접과기에서 《뒤터에 나쁜 배나무 두그루 있는것을 키다리 전씨는 두그루 다 톱으로 밀그루를 베어버리고 좋은 배로 이름난 나무의 아지를 몇개 베여다가 그것을 밀그루를 베어버린 그 나무에 붙이고 이긴 흙으로 봉하여두었다.》라고 한 역사적사실은 이것을 잘 말하여준다.

고려시기 농업을 발전시킬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셋째로, 큰물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데 있다.

큰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는것은 농업생산의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농경지가 류실된다면 농업생산에서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고려인민들은 큰물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하천뚝쌓기공사를 힘있게 벌렸다. 1170년 6월 연북정남쪽의 강뚝이 터졌을 때 봉건정부는 방리의 인민들을 동원하여 그것을 다시 쌓게 하였다.

강하천뚝가운데는 관개수로로 건설된것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큰물피해를 막기 위하여 쌓은것들이다. 그러므로 고려시기에 쌓은 천방(또는 방천)은 거의 모두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고려시기 농업을 발전시킬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넷째로, 인민들의 애국적열의와 근면한 로동에 의하여 관개수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데 있다.

관개수리사업은 농작물에 필요한 물을 인공적으로 대주어 큰물과 가물피해로부터 토지와 농작물을 보호하며 농작물의 물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물은

농업생산의 기본요인이며 물이 없이는 농업생산의 장성을 기대할수 없다.

오랜 기간의 외래침략자들과의 전쟁끝에 이미있던 저수지들이 파괴되어 당시 관개수리사업은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1188년 3월에 봉건정부는 전국적으로 관개용저수지를 건설할데 대한 국가적조치를 취하였다.

경상도 밀양 수산제도 고려때 건설된 관개용저수지의 하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밀양 고적조에는 《수산제는 수산현에 있었는데 둘레는 20리였다. 전하는데 의하면 고려의 김방경이 이 저수지뚝을 쌓고 논에 관개하였다.》라고 써여있다.

새로 관개용저수지들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삼국시기에 건설된 저수지들도 복구되어 관개에 리용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8 상주 산천조에는 《공검지는 고을 북쪽 29리에 있다. 고려 명종때 사록 최정분이 옛 뚝자리에 쌓았다. 제방의 길이는 860보, 둘레는 1만 6 647자이다.》라고 써여있다.

《고려사》 지리지에는 공검지 수축년대를 명종 25년(1195년)으로 밝히고있다.

1469년에 편찬된 《속찬경상도지리지》에 의하면 경상 1개 도에만도 722개의 저수지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고려시기와 15세기초에 건설된것들이라고 한다.

그후 고려에서는 관개저수지의 건설사업과 함께 수차를 관개에 리용하는 문제도 여러번 시도되였다.

이처럼 농업생산을 장성시키기 위한 인민들의 창조적지혜와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고려시기 농업생산은 이전시기에 비하여 훨씬 장성하였다.